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하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60장 결론

『산상설교』 하권 제60장, 인쇄 413~429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7:28~29

> ❓ **산상설교를 왜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제로 살아야 하는 걸까?**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60편의 설교를 마치며 “왜 이 설교를 실천해야 하고, 왜 그 무서운 경고를 들어야 하는가?”라고 묻는다. 그는 답이 설교 내용이 아니라 설교하신 분에게 있다고 말한다. 무리가 놀란 이유를 따라가면서, 먼저 서기관과 다른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식(독창성과 확신)을 살핀다. 이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하신 주장을 하나씩 모은다. 율법의 참 해석자, 박해를 받을 이유가 되는 분, 소금과 빛을 만드는 분, 하늘에서 '오신' 분, 율법과 예언을 이루는 분, '주'라 불리는 심판주가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무리처럼 놀라는 데서 멈추지 말라고 한다.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새 생명을 받아 산상설교의 백성이 된 확신 위에 서라고 촉구하며 설교를 맺는다.

📜 절별 정리

📜 1. 이 설교를 따라야 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분이다

로이드 존스는 복음서 기자가 성령의 인도로 이 두 절을 덧붙인 이유가 있다고 본다. 설교 자체에서 설교하신 분에게로 우리 눈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앞선 몇 장에서 주님은 자기기만을 경고하셨다. 또 이 설교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밖에 있고, 심판 날에 기대던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왜 이 경고를 믿어야

가르침에서 멈춰서도 안 된다. 역사 속 다른 교사들에게는 가르침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가르치시는 분이 가르침보다 더 중요하다. 이분의 신성을 의심하면 산상설교를 대하는 태도가 기초부터 흔들린다. 반대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말씀임을 믿으면 이 말씀은 경외와 권위를 갖는다. 그러므로 어떤 가르침이 불편해서 반대하거나 그럴듯하게 설명해서 피하고 싶어질 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1. 산상설교의 권위는 말씀하신 분에게서 온다
2. 다른 교사와 달리 교사가 교훈보다 앞선다
3. 화법이나 윤리에서 멈추면 안 된다
4. 그분을 의심하면 설교관 전체가 흔들린다
5. 피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임을 기억

> **마태복음 7:28~29**
>
> 설교의 결과, 곧 무리의 놀람을 기록해 시선을 설교자에게 돌린다
>
>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29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 **마태복음 7:24~27**
>
> 앞 장들에서 다룬 실천 촉구와 심판 경고로, 이 장이 답할 질문의 배경이다
>
> 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교사이신 그분이 그의 가르친 내용보다 더욱 중요하다”

📜 2. 교리 없는 산상설교라는 착각

로이드 존스는 세상에서 '복음'으로 통하는 것 가운데 참 복음과 다른 것이 많은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본다. 신약의 교훈과 주님 자신 사이에 선을 긋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산상설교가 실제적이고 사회질서의 기반이 된다며 좋아한다. 그러면서 이것을 속죄, 그리스도의 죽음, 서신서의 교리와 맞세운다. 로이드 존스는 그들이 산상설교를 한 번도 바르게 읽은 적이 없다고 진단한다. 제대로 읽었다면 이 설교가 끊임없이 한 분에게 집중된다는 사실을 보았을 것이다. 그가 줄곧 말해 온 대로 산상설교는 다른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기초적 진술'이고, 교리로 가득 차 있다. 산상설교를 윤리 교훈으로만 보는 생각은 이 설교의 내용과도, 특히 마지막 두 절의 강조점과도 상관이 없다. 신학과 성경의 핵심은 우리를 주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과의 친교로 이끄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 장면을 마음에 그려 보자고 권한다.

1. 교훈과 주님을 분리하는 것은 본질적 잘못
2. 산상설교와 속죄 교리는 대립하지 않는다
3. 산상설교는 기초적 진술이며 교리로 가득하다
4. 모든 교훈은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끈다
5. 주님께 바로 서지 않으면 다른 가르침은 무가치

> **마태복음 7:28~29**
>
> 마지막 두 절의 강조점은 윤리가 아니라 '가르치시는 분'이다
>
>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29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산상설교는 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 3. 무리는 무엇에 놀랐나: 서기관과 다른 권위

설교자는 장면을 그려 보인다. 무리 앞에 앉은 이는 나사렛 출신의 젊은 목수다. 평범한 직공이었고, 학교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바리새인도 율법학자도 아니었다. 가말리엘 같은 대가 밑에서 배운 적도 없다. 이런 사람이 율법을 풀어 가르치니 사람들이 할 말을 잃을 만큼 놀란 것도 당연하다. 놀람의 첫째 원인은 그분의 권위였다. 서기관(율법학자, 율법과 그 해석을 가르치던 전문가)은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고 늘 권위자의 말을 인용했다. 그들은 율법 자체보다 모세 이후 쌓인 해석의 전문가였다. 로이드 존스는 이를 법정에서 여러 판례와 학자 의견을 번갈아 인용하는 모습에 빗댄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인용만 이어 붙인 설교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런 설교는 학식 있어 보일 수는 있다. 서기관들은 자기 학식을 자랑하며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고 비웃었다. 반면 주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셨다. 내용도 방법도 독창적이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확신이었다. 첫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는 가정도, 가능성의 여지도 없다.

1. 말씀하신 분은 교육받지 못한 나사렛 목수
2. 서기관은 권위자를 인용만 했다
3. 오늘날의 인용 나열식 설교도 같은 유형
4. 주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로 말씀하셨다
5. 첫 팔복부터 의심 없는 확신이 드러난다

> **마태복음 7:29**
> 서기관과 대조되는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
>
>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 **요한복음 7:15**
>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며 학식을 자랑한 지도자들의 비웃음
>
>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54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55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56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마태복음 5:3

가정 없이 단정하는 첫 팔복으로 주님의 확신을 보여 준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 4. 자신에 대한 주장 ① — 율법의 해석자, 박해의 이유, 소금과 빛의 근원

로이드 존스는 권위보다 더 놀라운 것이 말씀의 내용, 특히 주님이 자신에 대해 하신 말씀이라고 본다. 첫째로 마태복음 5장의 “옛 사람에게 말한 바 …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가 있다. '옛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모세율법 해석을 가리킨다. 주님은 그것을 서슴없이 바로잡으셨다. 그들은 몸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여기며 율법을 겉모습의 차원으로 끌어내렸다. 하나님이 마음과 바람에 관심을 두신다는 것을 몰랐다. 주님은 자신만이 율법의 영적 의도를 밝히는 참 해석자라고 하셨고, 사실상 자신을 율법 수여자로 보셨다. 둘째로 설교 끝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기 말에 결정적 무게를 두는 표현이다. 셋째로 마태복음 5:11에서 주님은 “이 교훈 때문에”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라고 하지 않고 “나로 말미암아” 박해받으면 복이 있다고 하셨다. 산상설교를 윤리로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즐겨 인용하는 “다른 편 뺨을 돌려 대라”보다 앞서,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죽을 각오부터 요구하신 것이다. 넷째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다”는 제자들이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특별한 백성이 된다는 뜻이다. 그들은 소금과 빛의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 '된다'. 로이드 존스는 이것을 중생(위로부터 새로 태어남)의 교리이자, 주님이 그들 안에 사시며 성품을 나누어 주시는 신비적 연합의 교리로 읽는다.

1. 주님은 율법의 유일한 참 해석자로 서셨다

3. “나의 이 말”에 영원한 무게를 두셨다
4. 박해의 이유는 교훈이 아니라 '나'다
5. 소금과 빛은 연합으로 '되는' 정체성

마태복음 5:27~28

몸의 간음만 따지던 해석을 마음의 차원으로 바로잡으신 예

27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7:24

“나의 이 말”로 자기 말씀의 결정적 권위를 주장하심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5:11~12

“나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자의 복으로 자신을 고난의 이유로 삼으심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39

윤리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구절도 주님 중심 요구 뒤에 나온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마태복음 5:13~14

주님과의 관계로 소금과 빛이 됨, 곧 중생과 연합

> [13]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 5. 자신에 대한 주장 ② — "나는 왔다", 율법의 성취, 주와 심판주

무리는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물을 수밖에 없다. 주님은 마태복음 5:17에서 답하신다. 주님은 “나는 태어났다”고 하지 않고 “나는 왔다”고 하셨다. 밖에서, 곧 영원과 하늘과 아버지의 품에서 오셨다는 뜻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의로운 해”처럼 장차 오실 분을 늘 말해 왔다. 로이드 존스는 이 표현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와 함께 성육신(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심)을 가리킨다고 본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두 가지 주장을 담는다. 하나는 자신이 죄가 없고 완전하다는 주장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구약의 어느 성도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분은 율법의 일점일획까지 이루겠다고 하신다. 주님은 율법을 지키셨을 뿐 아니라 위반에 대한 형벌까지 짊어지셨다. 그렇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다. 다른 하나는 모든 선지자가 가리킨 메시아(구약이 약속한 구원자)가 자신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7:21~23에서 주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여”라고 부를 것이라고 하신다. 성경에서 하나님께만 쓰는 최고의 칭호를 자신에게 돌리신 것이다. 나아가 심판 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고 선고할 심판주가 바로 자신이라고 선언하신다. 산에 앉아 가르치신 분이 마지막 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분이다. 그런데도 이 설교를 교리 없는 사회 선언으로 보는 것을 로이드 존스는 “비극적인 어리석음”이라고 부른다.

1. “나는 왔다”는 하늘에서 오신 성육신 선언
2. 율법 성취는 무죄와 완전함의 주장
3. 율법을 지키고 형벌까지 짊어지셨다
4. 모든 예언과 약속이 그분 안에서 성취된다
5. “주여”를 받으시며 심판주로 서신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라기 4:2

선지자들이 예고한 장차 오실 분('의로운 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요한복음 10:30

아버지와 하나 되심, 성육신을 가리키는 근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로마서 3:10, 3:19

율법을 지킨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온 세상이 심판 아래 있다

로마서 3:10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19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0:4

그리스도가 믿는 자의 의를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고린도후서 1:20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 [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분은 인간 교사의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 6. 참된 반응: 놀람을 넘어 새 백성으로

로이드 존스는 묻는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인가?" 본문은 무리가 놀랐다고만 할 뿐, 그 이상 나아갔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참된 반응은 이분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복음의 중심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산상설교는 무엇인가? 새 율법도 처세술도 아니다. 이 설교는 구원 문제에서 인간의 노력과 생래적 능력(타고난 본성의 힘)을 신뢰하는 것을 단번에 정죄한다. 율법이 영적인 것이라면 아무리 애써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다. 바울이 깨달았듯 계명이 오자 죄는 살아나고 우리는 죽는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생, 곧 새 성품과 새 생명이 필요하다. 주님은 바로 그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 산상설교는 타고난 사람이 하나님께 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백성,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백성을 묘사한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의 약속'인 성령을 받은 뒤에야 가능하다. 그렇다고 신자가 죄가 없거나 완전하다는 뜻은 아니다. 삶 전반의 방향이 이 설교와 일치한다는 뜻이다. 신자는 자기 부족함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고, 최선을 다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다. 주님은 '맏아들'이자 '마지막 아담'으로서 새 인류를 창조하러 오셨다. 그분께 속한 사람은 모두 그분을 닮아 간다.

1. 무리의 반응은 놀람에서 멈췄다
2. 산상설교는 인간 노력의 구원을 정죄한다

4. 산상설교는 성령 받은 백성의 묘사다

5. 완전함이 아니라 삶 전반의 방향이 일치한다

로마서 7:9~10

영적인 율법 앞에서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는다, 곧 자력 구원의 불가능

9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사도행전 1:4

아버지의 약속인 성령, 산상설교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선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일서 3:9, 5:18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곧 삶의 방향을 말함

요한일서 3:9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요한일서 5:18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로마서 8:29

그리스도가 많은 형제 중 맏아들, 새 인류의 머리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 15:45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새 사람

>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 7. 반석 위의 확신

로이드 존스는 이것이 놀라운 교리이지만 진리라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형제를 사랑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이시고, 간절한 소원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의식한다. 그는 '원자력 시대'의 불확실함도 언급한다. 시련과 시험, 죽음과 최후 심판이라는 확실한 사실 한가운데서도 신자는 바울처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찬송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 주 나의 반석이시니”를 인용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가 없다는 말씀과,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다는 말씀으로 60편의 설교를 맺는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마지막 비유가, 반석이신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완성되는 셈이다.

1. 형제 사랑과 의에 대한 갈망이 소속의 표지
2. 소원도 행함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드신다
3. 불확실한 시대에도 확신의 근거는 그분이다
4.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는 없다
5. 반석 비유는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완성된다

> **요한일서 3:14**
> 형제 사랑으로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안다, 곧 확신의 표지
>
>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 **빌립보서 2:13**
>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디모데후서 1:12

믿는 분을 알고 그분이 지키실 것을 확신함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고린도전서 3:11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가 없다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디모데후서 2:19

하나님의 견고한 터,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고 그들은 불의에서 떠난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 오해와 반론

📖 용어

서기관(율법학자)

모세율법과 그 해석을 가르치던 전문가로, 늘 앞선 권위자의 말을 인용해 가르쳤다.

권위

남의 말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확신 있게 진리를 선언하는 힘이다. 주님의 권위는

성육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일이다.

메시아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오실 것이라고 약속한 구원자다.

중생(신생)

성령으로 새 성품과 새 생명을 받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일이다.

신비적 연합

그리스도가 신자 안에 사시며 자기 성품을 나누어 주시는 깊은 결합이다.

생래적 능력

태어난 그대로의 인간 본성이 가진 힘으로, 구원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마지막 아담

첫 아담과 달리 새 인류를 시작하신 그리스도를 부르는 이름이다.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산상설교를 실천해야 하는 궁극적 이유는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 산상설교는 교리 없는 윤리 강령이 아니다. 성육신, 율법 성취, 메시아 되심, 심판주 되심을 주장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다.
- 이 설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드러내고, 신생과 성령을 통해 만들어지는 새 백성을 묘사한다.
- 놀라기만 하는 무리에 머물지 말고, 이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속해야 한다.

- 신자는 완전하지 않아도,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서 확신을 갖고 산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